

# 기세 오른 광주FC, 홈 개막전서 연승 도전

K리그1 5일 FC서울과 대결 물러서지 않는 승부 예고  
토마스·산드로 좋은 호흡 속 엄지성·정호연 등 활약 기대  
다양한 이벤트·경품도 준비

광주FC가 홈 개막전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가 오는 5일 오후 4시 30분 광주죽구전운동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 홈개막전을 치른다. 올 시즌 홈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광주는 연승을 노린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압도적인 질주를 하면서 '첼피언'의 자격으로 승격을 이룬 광주는 1부리그 복귀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수원삼성을 상대했던 시즌 개막전에서 광주는 후반 43분 터진 아사니의 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다. 광주는 분위기를 이어 홈팬들 앞에서 연승을 달리겠다는 각오다. 시즌 첫 경기에서 '새 얼굴'들의 활약이 돋보였

다. 네덜란드 출신 수비수 티모가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무실점 승리에 기여하면서 1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토마스는 전방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이면서 산드로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후반 교체 투입된 아사니는 강력한 원발수로 결승골을 장식하면서 올 시즌 광주의 돌풍을 예고했다. 광주 유스 출신 '광탄소년단' 엄지성, 정호연, 이희균도 날카로운 패스와 드리블로 승리에 힘을 보탤다. 무엇보다 골키퍼 김경민이 연달아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안방에서 만나는 '전통의 강호' 서울은 미디어데이에서 많은 사령탑이 상위권 후보로 꼽은 팀이다. 서울은 기성용,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일류첸코 등 기존 선수에 임상협, 황의조, 최철원 등이 팀에 합류하면서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상대전적에서도 서울에 2승 4무 13패로 광주가 절대적인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개막전 승리로 상승세를 탄 광주는 '물러서지 않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까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개막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는 홈 개막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도 준비했다. 하프타임 추첨을 통해 LG스탠바이미TV, 아이패드 미니, 애플워치, LG시네마빔, 닌텐도,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팬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또 선수단이 직접 워밍업 플레이리스트를 선정해 팬들에게 들려준다. 첫 타자로 부주장이자 '래퍼' 이순민이 나서 5곡의 음악을 준비했다. 선곡으로 그치지 않고 이순민은 본인의 첫 앨범 발매곡인 'Zebra' 한정판 CD 100장을 1번 게이트 MD샵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가격은 2만원으로 수익금은 취약계층과 지역 유소년 선수들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선착순 2000명에게 팝콘과 광주FC 클레퍼를 증정하고 모든 관중에게 물과 과자를 제공한다. 1번 게이트에서는 광주의 엠블럼과 마스코트 보니, 그리고 축구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작가 '국축다방'이 디자인한 꼬꼬 타투스티커를 선물한다. 2번 게이트 광장에서 선수단 팬 사인회가 진행되고,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교촌치킨 '블랙시크릿' 시식행사를 연다. F구역에는 푸드 트럭도 준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5일 오후 4시 30분 FC서울을 상대로 K리그1 2023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 사진은 지난 25일 수원에서 열린 수원삼성과의 1라운드 경기에서 이순민(왼쪽)이 공을 다루는 모습. <광주FC 제공>

## '피겨 샷별' 신지아 세계주니어선수권 쇼트 2위

1위 시마다와 단 0.59점 차이  
김연아 이후 17년만의 금 도전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샷별' 신지아(15·영동중)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에 오르며 2년 연속 메달 전망을 밝혔다. 신지아는 2일(한국시간) 캐나다 켈거리에서 열린 2023 ISU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9.99점, 예술점수(PCS) 31.20점으로 합계 71.19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9월 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세운 자신의 쇼트 프로그램 최고점(70.41점)을 뛰어넘은 기록이다. 신지아는 지난해 이 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획득, 한국 선수로는 김연아(2005년 은메달·2006년 금메달) 이후 16년 만에 포디움에 오른 바 있다. 올해 2회 연속 입상을 노리는 그는 김연아 이후 17년 만의 주니어 세계선수권 금메달 획득에도 도전한다. 쇼트프로그램 1위인 시마다 마오(일본·71.78점)와는 단 0.59점 차다. 2023-2024시즌 피겨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에서 언니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는 등 올 시즌 때론 성장세를 보인 신지아는 이날도 거침없이 연기를 펼쳤다.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 이어 더블 악셀을 깔끔하게 소화했고, 플라잉 카벨 스핀을 가장 높은 레벨 4로 처리했다.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에 트리플 루프 점프를 뒀던 그는 스텝 시퀀스(레벨 4),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 4), 레이백 스핀(레벨 3)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신지아는 경기 뒤 매니지먼트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쇼트프로그램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자신감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번 시즌 출전했던 대회 중 가장 좋은 점수를 얻어서 정말 기



지난 1월 열린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연기하는 신지아. /연합뉴스

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피겨스케이팅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만족할 만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함께 출전한 김유재(평촌중)와 권민솔(목동중)도 각각 4위, 6위를 차지해 쇼트프로그램 상

## 광주 출신 장재근, 국가대표 선수총장 취임

1980년대 아시아 최고 스프린터

1980년대 아시아 최고 스프린터로 한 시대를 풍미한 광주 출신 장재근(61·사진) 전 서울시청 육상 감독이 엘리트 체육의 본산인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총장에 취임했다. 대한체육회는 2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챔피언 하우스 대강당에서 26대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총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장 신임 선수총장은 광주 살레시오고, 성균관대를 나와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200m에서 연속 금메달을 딴 스타 스프린터다. 육상 국가대표 단거리 감독,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 서울시청 감독 등 지도자와 행정가를 오가며 역량을 쌓았다. 장 선수총장이 1985년 자카르타 아시안선수권 대회에서 작성한 200m 기록 20초41은 2018년 박



대건이 20초40으로 0.01초 줄일 때까지 33년간 한국 기록을 유지했다. 장재근선수총장은 취임식에서 "과거 태릉선수촌 시절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로 경험을 쌓아 선수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대표 훈련 시스템, 선수촌 문화 등 많은 부분이 시대와 함께 변화한 점을 아는 만큼 그에 맞춰 국가대표 선수촌이 메달 획득의 산실이 되는 것은 물론 스포츠 인권이 향상되고 배움과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빙속 간판' 김민선, 세계선수권 첫 우승 도전

4일 여자 500m·1000 출전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을 대표하는 새로운 '빙속 여제'로 입지를 굳혀가는 김민선(24·의정부 시청·사진)이 생애 첫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김민선은 4일(한국시간) 새벽 네덜란드 헤이렌베인 티알프에서 열리는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 출전에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김민선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종목에서 단 한번도 '톱10'에 들지 못했다. 올해는 이야기가 다르다. 김민선은 올 시즌을 앞두고 무서운 속도로 기량을 끌어올렸고, 세계 최고 여자 단거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김민선은 올 시즌 월드컵 1차 대회부터 5차 대회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여자 500m 우승을 싹쓸이했다.



지난달 18일에 열린 월드컵 6차 대회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놓치며 전관왕 등극에 실패했지만, 바닷난 체력문제에도 메달을 목에 걸며 실력을 입증했다. 김민선은 이번 대회 여자 500m 종목의 유력한 우승 후보다. 최대 경쟁자는 월드컵 6차 대회 우승자인 베네사 헤이초크(오스트리아)다. 김민선은 이번 대회 여자 500m와 여자 1000m 등 두 종목에만 출전한다. 여자 1000m는 4일 밤 11시 57분에 시작한다. 이번 대회엔 남자 단거리 간판 김준호(강원도청)와 장거리 이승훈(IHQ), 정재원(의정부시청)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3월 11일 원장 공개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대외비, 바다 탐험대 육포넛 육지수호 대작전
2관	서처 2
3관	명종이, 더 웨일
4관	카운트
5관	엔트맨과 와스프: 쿼텨메니아
6관	대외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엔트맨과 와스프: 쿼텨메니아
7관 씨네커를	크리드 3,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어메이징 모리스, 리틀 엘렌: 외계인과 인테나 대소동
8관 씨네커를	카운트,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062-526-0363